

2. 都給 限度額 制度의 廢止

- (意義) 都給 限度額 制度의 廢止로 國內 建設 市場이 制限 競爭 體制에서 自由 競爭 體制로 전환
- (廢止 背景) 都給 限度액 制度는 公事의 種類나 特性에 關係없이 포괄적으로 수주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에 外國과 摩擦을 야기할 소지가 큼
- (現制度의 評價) 시공 능력 평가 지표로서의 不適合, 부실 공사 야기 우려가 있고 초대형 公事에서 外國 업체의 입찰을 제도적으로 保障함
- (波及 效果) 國內 업체의 수주 감소, 정부의 감리·감독 기능의 강화 효과가 예상되나 國內 업체에 競爭力 強化 機會를 제공
- (政策 課題) 國內 업체들의 技術力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시공 능력 평가 制度의 도입

國內 建設 市場이 自由 競爭 體制로 전환

- (意義) 都給 限度액 制度¹⁾의 폐지로 國內 建設 市場이 제한 경쟁 體制에서 自由 競爭 體制로 전환될 것임
- 1958년에 도입되어 30년 이상 시행된 都給 限度액 制度는 공사 수주액을 制限함으로써 사실상 建設 市場내에서 진입 장벽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 都給 限度액 制度의 폐지로 인해 國內 建設 업체는 都給 限度라는 포괄적인 기준에 의한 制限 競爭 상황에서 부문별로 공사 수행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

通商 摩擦의 事前 解消

- (廢止 背景) 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 이후 國內 建設 市場의 전면 개방시 外國 建設 업체들이 都給 限度액 制度를 競爭 制限 要素로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建設교통부 에 요청하여 1~2년내에 폐지하기로 합의
- 都給 限度액 制度는 公事의 種類나 特性에 關係없이 포괄적으로 공사 수주 규모를 제한하여 과도한 競爭 制限 要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1) 都給 限度액 制度는 建設 업체가 1 건의 國內 公事에서 수주할 수 있는 最高 限度額을 定하는 制度이며, 都給 限度액은 建設교통부가 國內 建設 업체의 최근 2년간 공사 실적, 경영 실적, 기술 개발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여 산정

현행 제도로는 超大型 工事 入札에서 외국 업체 유리

- (現制度의 評價) 현행 제도는 시공 능력 평가 지표로서 부적합하고 부실 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 업체 진출시 오히려 국내 시장 잠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우려가 있음
- 97년 이후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시 현행 도급 한도액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업체보다 資本金, 賣出額(시공액) 규모 등이 월등히 높은 외국 업체들에게 오히려 국내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Bechtel Group(美), Fluor Daniel(美), 시미즈건설(日), 가지마건설(日) 등 외국 대형 건설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현대건설의 都給 限度額 順位는 28위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高度의 技術力을 갖춘 외국 대형 건설 업체들이 국내의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있음

<외국 대형 건설 업체와 도급 한도액 비교>

(단위 : 억 달러)

	수주액(93년)	추정 도급 한도액	순위
현대건설	53.3	25.6	28
Fluor Daniel	252.9	121.4	1
Bechtel Group	148.5	71.3	2
시미즈(清水)건설	137.3	65.9	3
가지마(鹿島)건설	122.0	58.5	4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건설 공사 입찰 제도 및 하도급 제도 개선 방안」, 1995.3.

건설 업체의 施工 能力 評價 指標로서 부적합

- 도급 한도액 제도는 주로 工事 實績에 근거하는 산정 방식의 단순성 때문에 대형화, 고도화, 복잡화되고 있는 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건설 업체의 시공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 토건 도급 한도액의 경우 토목과 건축 실적을 합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업체의 專門 施工 能力 指標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건설 분야의 신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入札 資格 事前 審査 制度(PQ)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공사

- 실적으로 수주 한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不實 工事 야기 가능성**
- 도급 한도액 제도는 도급 한도액을 높게 받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로 하여금 量的 成長 戰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국내 건설 업체의 수주 감소가 우려되나 競爭力 向上 機會를 제공**
- (波及 效果) 국내 건설 시장내에서 自由 競爭 時代가 도래함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건설 업체의 쇠퇴
 - 국내 건설 시장내에서 자유 경쟁이 확산되어 국내외 건설 업체간의 수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국내 건설 업체는 아직까지 專門化가 미약하여 건설 시장 전면 개방시 외국 업체와의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주 감소 우려가 예상됨
 - 정부의 監理·監督 機能이 강화될 것인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업체의 도태 예상
 - 정부는 도급 한도액 제도의 도급 제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감리 제도 강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延長, 부실 시공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감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도급 한도액을 높게 받기 위한 국내 건설 업체들의 量的 成長 戰略이 質的 成長 戰略으로 전환됨으로써 競爭力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부수적으로 부실 공사의 가능성도 낮아질 것임
- 보다 精밀한 施工 能力 評價 制度의 導入**
- (政策 課題) 국내 건설 업체들의 技術力을 높일 수 있는 보다 精밀한 시공 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시공 능력의 지표로서 實績보다는 입찰 자격 사전 심사 제도(PQ), 사후 시공 평가 및 품질 관리 제도, 최적격 낙찰 제도 등 보다 精밀한 시공 능력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
 - 일본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 항목으로서 기술 직원 수, 營業年數, 특별한 공사의 경험, 공사의 안전성, 노동 복지 상태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운 창 호)